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9월

선교편지 제 123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선교 자체보다, 함께 수고할 헌신된 현지 사역자를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교사들은 때가 되면 언젠가 떠나야 할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현지인들이 선교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고스는 지역적으로 다바오와 떨어져 있고, 아직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헌신된 사역자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임했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형편이 좋고, 기회가 더 많은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곳 민다나오 섬의 제법 큰 도시인 다바오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많은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교사'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 과정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상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서 1~2년을 추가로 공부하면 경제적으로 교사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학생을 모집할 때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은 극히 소수로서, 정말 사명감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교나 직장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헌신된 6명의 현지 교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부분의 신학교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의 길이 아닌 새로운 진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던 연약한 종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심을 감사하며,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함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명의 교역자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장학사역을 통하여 징검다리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또 한 명의 교역자가 결단하고 신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아닌 저들에게 이곳 선교지의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교 사역 자체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역할도 잘 감당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이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대하 6:42)**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역 중에 단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학 사역'을 통하여 이번 학기에 12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후원자들이 기도하며 지원해 주시는 선교 장학금으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학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에 출석할 까닭이 전혀 없던 학생들이, '장학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어느덧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고, 찬양팀에 속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게 될 정도로 성장하여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달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금요일과 토요일 밤을 지새워가며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12명의 학생들 중에 10명이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사 자격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1명은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1명은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교사가 되기 보다는 직장을 찾고 있는 학생은 대학 졸업식에서 성적 우수자로 상을 받은 '페비'라는 여학생입니다. 4년 전 장학사역에 합류를 할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이 교회에 함께 찾아왔었는데, 어머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페비와 동생을 간곡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페비는 어린 여동생과 함께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으로 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며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곳 대부분 학생들의 꿈의 직장은 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약 3년여간 임시 교사직을 마치면, 안정된 월급과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보다도 성적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비는 교사가 아닌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사도 좋지만 자신은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좁은 길을 택하는 페비의 모습 속에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이후 오랜만에 페비의 모든 식구들과 여동생의 친구들까지 주일 예배에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하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총 출동을 한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 학생으로만 보였던 페비의 여동생 '자메라'가 이번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언니처럼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딸 페비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동생 '자메라'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좋은 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받은 제가 도리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이 장학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졸업생들을 보내고, 새로운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대학과 지역도 넓혀져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장학생들이 합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의 많은 청년들이 장학사역을 통하여 학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이곳을 복음화 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 11년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벼운 몸살이나 감기 외에 어떠한 심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나 왔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누리고 있는 안전과 건강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치 곡예와 같은 혼잡한 운전 중에도 사고가 없었으며, 한국인은 걸어 다니는 ATM으로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됨에도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나 왔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선교사들이나, 지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가까이 듣고 있고, 많은 사건/사고 소식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유난히 뎅기 (Dengue) 모기에 관한 뉴스가 필리핀 방송과 신문에 자주 오르고 있고, 주변 지인들이 뎅기 열로 입원하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국 (DOH)에 의하면 지난 달까지 뎅기 모기로 인한 환자가 약 21만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 이상 급증하였고, 사망자도 900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역시 급증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전국에 뎅기 모기 주의보를 내리고, 각 지방 정부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는데, 들려오는 피해 소식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0월까지 우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뎅기 열로 인한 피해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세에 따라 뎅기 열, 뎅기 출혈, 뎅기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뎅기 열은 고온 발열, 두통, 오한, 식욕 부진, 근육통 등이 심하게 발생하며, 혈소판 (Platelet)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은 거의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탈수증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물을 많이 마셔야 회복이 빠르는데, 바른 대처를 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사망률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뎅기 열의 잠복기는 3~14일 정도이고, 발열이 3~5일 정도가 계속되는데,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이 오는 상태를 반복하여서, 일반적인 감기와는 확연히 다른 증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7월말,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Dengue 열로 인하여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 있으면서 수없이 듣고, 보아왔던 Dengue 열에 마침내(?) 감염된 것입니다. 초기에 심한 고열과 오한이 반복될 때는 미처 Dengue 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심한 감기 몸살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응급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증상으로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던 의사들은 혈액 검사 등을 통하여 Dengue 열로 확진을 하여,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녔지만, 제가 직접 팔에 수액을 꽂고,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실로 가기는 처음입니다. 병원이지만 별도의 환자복도 없고, 입고 온 옷 그대로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4시간 마다 체온, 맥박, 혈압을 확인하고, 6시간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수액을 24시간 꽂고 있는 가운데, 물은 계속 마셔야 합니다. 다량의 물을 섭취하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간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상의도 갈아 입지 못하다 보니, Dengue 열 보다는 병원을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목표가 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Dengue 열이 빠르게 호전되지 않은 가운데, 입원한지 5일째가 되어서야 거의 바닥까지 내려 갔던 혈소판 수치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여, 6일째 마침내 퇴원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고, 아내가 해 주는 밥을 먹으니, 날아 갈 것만 같습니다.

퇴원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디고스 예일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6학년 여학생 '리에나'가 Dengue 열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리에나'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Dengue 열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가 전과 달라 졌습니다. 이제는 마치 교인들과 함께 깊은 고통을 같이 겪은 끈끈한 '전우'처럼 더 친밀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동안 건강과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지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모기'에도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셨다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 주신 사명을 따라 더욱 더 건강하게 힘있게 사용되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신 32:10)**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